

完州地域語의 움라우트 現象

韓 榮 均*

I. 序 論

近代國語에 있어서의 움라우트 現象은 그것이 母音體系의 變化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성 때문에, 李崇寧(1954)이래 오랫동안 國語音韻論의 관점의 대상이 되어 왔다. ‘ㅅ’母音의 消失과, 母音體系의 再整理過程으로서의 ‘ㅂ’, ‘ㅋ’等 前部母音의 單母音化, 그리고 前部母音의 성립을前提로 하는 ‘ㅣ’母音의 逆行同化作用이라는 有機的 關係 속에서, 이 움라우트 現象은 母音體系의 確認과 單母音化 時期의 추정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¹⁾

國語의 音聲體系에 대한 움라우트 現象의 意味追究²⁾에서 비롯된 이 現象에 대한 研究는, 相異한 層位에서의 이 音韻現象에 대한 規制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더욱 깊은 省察을 갖게 되었고,³⁾ 方言接觸이라는 관점에서 體言 形態素 內部에서의 이 現象의 考察을 통해 共時論의 면에서의 規則의 存在 與否가 檢討되기도 하였다.⁴⁾

個別方言에 있어서의 이 現象에 대한 研究를 통해 우리는 각 方言에

* 國語國文學科 四學年.

- 1) 이에 대하여는 李秉根(1970) “19世紀 後期 國語의 母音體系”, pp. 378~383 參照. 그러나 本稿는 이와는 약간 견해를 달리한다(S3. 參照).
- 2) 李崇寧(1954), 「國語音韻論研究」第一輯, ‘ㅅ’音攷, pp. 220~254, 302~312.
- 3) 金完鎮(1971), “音韻現象과 形態論의 制約”, 「學術院 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10.
- 4) 李秉根(1971), “靈峰地域語의 움라우트 現象”, 「金亨奎博士頌壽紀念論叢」.

있어서의 움라우트에 대하여도 비교적 상세하게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대체로 여러가지 制約의 문제에서 南部方言은 中部方言보다 制約 免除의 幅이 커진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先學들의 業績에 힘입어 이제 우리는 이 音韻現象에 대해 상당히 깊은 認識을 갖추게 되었는 바, 本稿 역시 이러한 바탕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이다.⁶⁾

全北 完州地域語의 움라우트 現象에 대한 檢討를 목적으로 하는 本稿는, 이미 이 地域語의 同一한 現象에 대한 細密한 調查·報告가 있었다⁷⁾는 점에서 어찌면 屋上加屋의 徒勞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I·II章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資料의 相異와 分析態度上의 차이는 完州地域語의 움라우트에 대한 새로운 解釋을 요구하게 된다.

個別方言에 대한 調査를 행할 경우, 우리는 여러가지를 고려하게 된다. 調査地點의 選定, 提報者的 選擇, 그리고 調査方法등에 있어, 調査目的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며, 이에 따라 동일한 地域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다른 結論이 나올 수 있다. 따라서 方言의 研究·報告에서 調査方法에 대한 자세한 記述은 必須不可缺少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점에서 우선 本稿 作成에 있어서의 調査方法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⁸⁾

5) 최근에 들어서는 方言(혹은 地域語)의 音韻論의 研究에 있어서, 움라우트 現象은 빼놓을 수 없는 관찰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개별방언의 움라우트에 대한 연구로는, 李秉根, 前揭論文, 崔泰榮(1978), “全州方言의 Umlaut 現象”, 「어학」5(全北大), 個別方言의 음운론적 연구에 포함된 것으로는 崔明玉(1974), “慶南三千浦 方言의 音韻論的研究”, 「國語研究」32, 田光鉉(1977), “益山地域語의 音韻論的研究”, 「어학」4, 李丞宰(1980), “求禮地域語의 音韻體系”, 「國語研究」45,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6) 이러한 學問的 바탕 이외에도, 本稿가 이루어지기까지에는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특히 資料의 覓集에서 原稿의 作成까지 物心兩面의 도움을 아끼지 않으신 李丞宰선배, 討論에 응해주신 徐禎穆, 郭忠求, 鄭仁祥, 朴敏圭등 여러 선배님들, 항상 자상하게 지도해 주신 李秉根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린다.

7) 崔泰榮, 前揭論文

8) 본고의 자료수집을 위한 조사는 1980년 8월 12일~8월 20일 사이에 이루어

調查地點으로는, 完州郡의 2個邑, 11個面⁹⁾중에서 高山面을 택했다. 그것은 郡單位의 調查일 경우 전체 지역의 言語地理學的 調査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한, 가장 典型的인 語形을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高山面은 1913年까지 全州府 高山郡으로 존속하였으며¹⁰⁾, 完州郡 西北部의 中心地域¹¹⁾으로, “完州郡은 全州市를 경계로 하여 그 南北(가령 參禮와 九耳)에서 그 어형을 달리하는 어휘를 가지고 있다”는 보고¹²⁾와, 全州市의 남쪽으로는 九耳, 上關 두개의 面밖에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言語地理學的으로 高山面이 完州郡의 典型的 語形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다(지도 참조). 全州市를 조사지점으로 택하지 않은 것은, 조사자가 대상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한 人口의 移動이 비교적 많은 都市에서 적당한 提報者를 찾는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과, 他地域에서의 移住民들의 影響으로 方言의 純粹性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두 가지 이유에서였다. 高山面은 人口가 점차 줄어드는 상태에 있어, 他地域에서의 移住民이 거의 없으리라고 추정되는 바¹³⁾, 方言의 純粹性을 보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長點도 또한 갖추고 있다.

調査方法에 있어서는, 우선 質問紙(韓國精神文化研究院 語文學研究室 編「韓國方言調查質問紙」)에 의해 概括的 調査를 한 뒤, 움라우트 現象만을 조사하기 위해 별도로 작성한 카드를 이용했으며, 自然發話의 수집을 위해 說話を 採錄, 이를 통해 움라우트에 대한 資料를 수집하였다.

提報者는 李東煥(男 68歳, 高山面 西峰里, 10代째 거주, 農業, 無學), 李順卜(女 68歳, 完州郡 龍進面 出身 15歳때 李翁과 결혼, 현재까지 함

겼으며, 10월 2일~5일까지 보충·확인조사를 실시하였다.

9) 廣東書館編輯部(1979), 「79韓國行政區域便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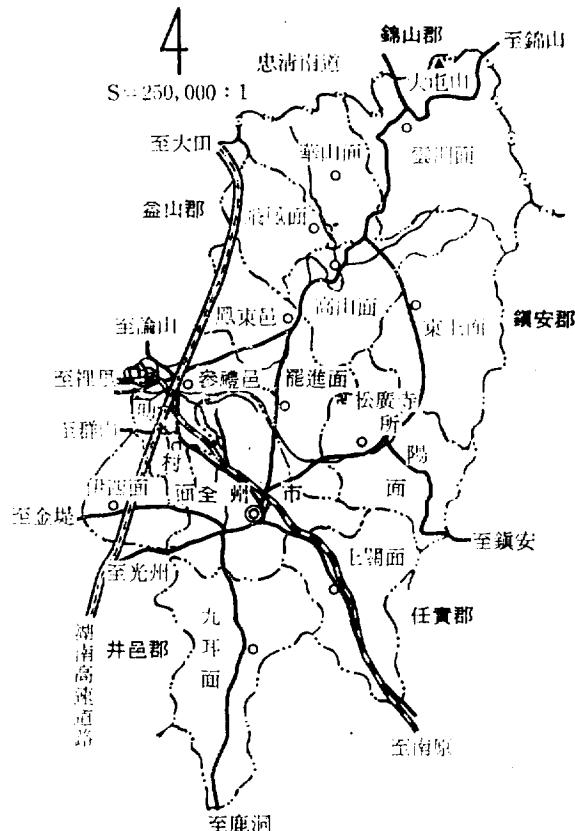
10) 檜相老(1966), 「韓國地名沿革考」. 朝鮮博文社(1929), 「朝鮮各道邑誌」. 1978年 太學社 影印.

11) 學園社(1971), 「世界大百科事典」卷 11. p. 62.

12) 李翊燮(1970), “全羅北道 東北部 地域의 言語分化”, p. 59. 「語學研究」6. 2.

13) 內務部統計(1978. 10)에 의하면, '74~'78 사이의 高山面 人口增加率은 0.9로서 약 1할이 감소하고 있다.

完州郡 略圖



· 79 · 故宮行政區域便覽

께 거주, 無學), 鹰惠鎮(男, 69歳, 高山面 邑內里, 18代째 거주, 漢藥房 경영, 中卒)의 세 분이었는데, 鹰翁은 說話의 제보자였으며, 직접 적어方言調查의 대상은 아니었음을 밝혀둔다.

앞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完州地域語의 음라우트에 대하여는 이미 자세한 보고가 있었다. 그것이 비록 全州市를 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필자의 조사내용과 일치하고 있다. 다만, 主格 標識

‘一이’와 繁辭 ‘一이一’가 體言과 연결되는 경우 항상 움라우트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라고 한 점¹⁴⁾과, 用言의 경우 介在子音이 [ㄹ]의 변이 음 [r]이면 아주 자유롭게 움라우트가 실현된다¹⁵⁾고 한 점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Ⅱ章에서 검토하겠지만, 다른 音韻論的 制約이 없는 한, 主格 標識 ‘一이’나 繁辭 ‘一이一’가 연결되는 경우, 거의 규칙적으로 움라우트된 어형을 보여주며, 개체자음이 [r]인 경우, 體言은 물론이거니와 用言의 경우에도 ‘(옷을) 대리一’ ‘(뉘를) 개리一’ ‘(밥상을) 채리一’ ‘(오줌이) 매렵一’ ‘(물건을) 사디리一’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움라우트된 語形을 사용하지 않고¹⁶⁾, 또 ‘채리一’ ‘매렵一’ 등의 경우도 ‘차리一’ ‘마렵一’ 등의 語形을 병행하여 사용하여, 介在子音이 [r]이 아닌 ‘엘히 (엄히)一’ ‘멕이(먹이)一’의 경우들이 움라우트된 語形만을 사용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는 달리 해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調查地點이 다르기는 하지만, 한 郡內라고 할 수 있는 地域에서의 調查 結果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은, 調查方法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結果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方言調查研究에 있어서 調查方法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다 할 것이다.

특히 提報者 選定의 경우, 과연 特定한 提報者를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多數人の 自然發話を 채록할 것인가 하는 것과, 特定한 提報者를 선택하는 경우,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조사결과에 決定的因素을 준다. 가능한 한 여러 사람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정확한 자료수집의 방법이 되리라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조사자

14) 崔泰榮, 前揭論文. p. 32.

15) 위의 글.

16) 이외에 가능한 예로 ‘베리(버리)一’, ‘기리(그리)一’ ‘에렵(어렵)一’ 등이 있으나, 움라우트를 일으킨 것보다는, 움라우트를 일으키지 않은 語形이 더 많이 쓰이는 듯 하다.

가 대상지역에 常住하지 않으면 그러한 조사는 불가능할 것이며, 따라서 대상지역 거주자가 아니면 方言研究는 불가능하다는 결론까지 나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不特定多數가 提報者가 되는 경우, 서로 다른 語形이 나타나는 수도 적지 않은데, 과연 어느 것이 그 방언의 정확한 言語材인가를 판단하는 것도 문제가 된다. 다른 方言과의 接觸(어떤 방식이든)을 통해 습득한 어형인가, 아니면 그 지역 고유의 어형인가를 판별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우리는 方言調查를 실시 할 경우 대상지역에서 3代이상 거주하였으며, 다른 지방에 오래 나가 있지 않았으며, 가능한 한 無學인(標準語 教育의 影響을 배제하기 위해) 사람을 提報者로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특정한 제보자를 선택하는 경우, 個人語의 影響등을 감안하여 확인·보충조사가 필요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特定人을 提報者로 選擇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서도 적지 않은 言語 差를 보게 되는데, 20代와 60代의 言語 使用이 다를 것은 물론이지만, 50代와 60代 사이에도 적지 않은 差異가 있음을 실지 조사의 경험에서 느낄 수 있다. 그것은 불과 십 수 년의 차이라 하더라도, 社會的 活動 領域이나(50代 男子의 경우 徵兵·徵用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것도 問題가 된다), 다른 方言과의 接觸에서 받는 影響(물론 個人的 差異는 있지만) 등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本稿의 資料와 崔泰榮(1978)의 資料가 차이를 보이는 것은 調查地點이 다른 데서 기인한 것이기 보다는 주로 提報者の 問題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특히 介在子音이 [r]인 用言의 資料上의 相異는 50代와 60代의 差異, 方言接觸의 문제가 아닌가 한다. 그것은 南部方言중에서도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介在子音 [r]의 制約이 弱化된다는 報告들에서 볼 때, 南部方言(여기서는 全南, 慶南을 지칭)의 영향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本稿가 목적하는 바는 다음과 같이 要約할 수 있

다.

첫째, 이제까지 움라우트 現象에 대한 研究에서 소홀하게 다루어졌던 被同化音의 音長과 이 現象과의 관계, 이는 被同化音의 音長이 움라우트를 방해하는 要素로 作用함을 밝히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될 것이다.

둘째, 움라우트 現象과 母音體系와의 관계, 여기서는 從來의 研究에서 前部母音의 單母音化가 이루어진 후에야 움라우트가 가능했다고 하는 견해를 無批判的으로 받아들인 데 대하여, 現代 完州地域語에서의 움라우트의 音聲的 實現과 文獻資料의 比較·檢討를 통하여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可能性을 提示해보고자 한다.

세째, 움라우트 規則의 段階의 適用의 可能性에 대한 檢討, 이는 同化主가 되는 'ㅣ'에 대하여, 歷史的 資料에 근거하여, 共時的으로 실현되는 경우가 없는 形態音素 /iy/를 設定하는 抽象的 태도를 止揚하고, 共時的으로 體言 語幹內部에서 움라우트된 語形을 보이지 않는 몇몇 語辭들을 중심으로 規則 適用의 完了를 검토하는 데 주안점을 두게 된다.

II. 움라우트와 音長의 機能

國語가 母音의 長短에 의한 音韻論的 機能을 가지는 時間言語임은 이미 널리 알려진 事實이다. 밤(夜) : 밤(栗), 눈(眼) : 눈(雪) 등이 보여주는 意味의 對立에서만이 아니라, 音長이 音韻論的 機能을 遂行한다는 사실은—대상언어가 中部方言에 한정된 것이었기는 하지만—金完鎮(1972, 1977), 金鎮宇(1976), 李秉根(1975, 1978) 등에서 밝혀진 바 있다. 西南方言에 대하여도 李丞宰(1980)는 音長이 音韻論的 機能을 가진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 機能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完州地域語의 움라우트 現象에 있어 被同化音의 音長이 움라우트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 하는 점인데, 그에 앞서

長母音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지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¹⁷⁾

- (1) 長母音은 한 單語(音韻論的 單語), 한 發音段落의 첫 音節에서만 그 音聲的 實現을 본다.
- (2) 用言 語幹에만 適用되는 規則인데, 子音語尾 앞에서 音長을 갖는 것이라 하더라도, 母音語尾 앞에서 그 音長이 消去된다.
- (3) 語幹이 2音節以上으로 확장되었을 때, 音長이 消去된다.

위의 (1), (2), (3)은 中部方言을 대상으로 한 記述이기는 하나, 完州 地域語에 대하여도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共時的으로는 語幹 内部에서는 이미 움라우트 規則의 適用이 完了되었다는 입장을 갖는 本稿에서는¹⁸⁾ 자연 現代 完州地域語의 움라우트 現象에 대한 音長의 機能에 대하여는 形態素 境界에서 일어나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된다.

形態素 境界에서의 움라우트 現象에 대한 觀察에서도, 위의 (2), (3)의 사실에 의해, 用言에 대하여는 音長과 움라우트現象과의 關係에 대해서는 觀察이 불가능하게 된다. 즉 '(미리를) 감-' '(산을) 넘-' 등과 같이 音長을 갖는 語幹이라 할지라도 '-이-' '-기-' 등의 派生接辭가 연결되어 '경기(감기)-' '빙기(넘기)-' 등으로 音節이 擴張됨에 따라서 그 音長을 상실하게 되고, 그 결과 音長은 音韻論의으로 아무런 機能도 遂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體言과 曲用接尾辭와의 結合에서 일어나는 움라우트 現象에 대하여 觀察할 수밖에 없는 데,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이 경우 움라우트 現象의 同化主는 主格 標識 '-이'와 繁辭 '-이-'가 된다.

그러나, 音長이 움라우트 現象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따지기 전에, 우선 完州地域語에서의 音長의 音韻論的 機能에 대하여 확인할 필요가

17) 金完鎮(1972), “形態論의 懸案의 音韻論의 克服을 為하여”, 「東亞文化」 11. pp. 285~287. 원래는 繁張性, 繁張母音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音長, 長母音과同一한 것으로 사용된다.

18) §3 參照.

있다.

- [ka:ma]~[ka:mE] (幅) ; [kama]~[kamE] (窄)
- [tai:m] (痰) ; [tam] (塘)
- [mai:l] (言) ; [mal] (馬) ; [mal] (斗)
- [ca:y] (간장) ; [cap] (場)
- [se:m]~[st:m] (島) ; [sem] (石)
- [ce:y] (釣) ; [cey] (情)
- [nu:n] (雪) ; [nun] (眼)
- [po:l] (불) ; [pol] (버선 불)
- [so:n] (孫) ; [son] (手)
- [ce:gi] (祭器) ; [cegi] (놀이)
- [c'ü:hada] (술에 취하다) ; [c'ü:hada] (꾸다)

위의 예들은 원래 語辭 자체가 音長을 가져 意味의 對立을 가져오는 것들로, 音長의 音韻論的 機能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예들은 위의 것과 성격을 약간 달리 한다.

- [ka:ne] (耕) : [kane] (行)
- [s'a:mən] (積) : [s'amən] (값이 싸면)
- [na:mən] (產) : [namən] (出)

이것들은 長音으로 실현된 것들이 모두 語幹 末音이 탈락하므로써 音素結合에 있어 短音의 예들과 같아졌으나 音長의 對立에 의하여 意味를 구별할 수 있는 예들이다.

이것은 完州地域語에서 音長이 形態素內部에서만이 아니라, 形態素의結合에 있어서도 音韻論的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인데, 여기서 우리 는 形態素의 結合過程에서 생기는 音韻現象인 움라우트에 대하여도 音長이 音韻論的인 機能을 가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된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音長이 國語에서 音韻論的 기능을 가진다는 것은 이미 周知의 사실이다. 그런데 움라우트라고 하는 '音韻現象'에서 音長의 역할에 대한 고려가 거의 없었다는 사실은 약간 奇異하게 느껴

진다. 이는 音長에 의한 意味對立을 보이는 對立變이 별로 많지 않고, 또 音長이 제 1 음절에서만 그 음성적 실현을 보이기 때문에 그 뚜렷한 現象을 살펴보는 데 資料의 制約이 따르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면 主格 標識 ‘一이’와 繁辭 ‘一이一’가 體言에 연결되는 경우의 움라우트 現象에 대한 資料부터 제시한다. 이 경우 兩者가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被同化音別로 한꺼번에 제시하기로 한다.

가) i→i, i:→i: 與否

- /kim/ (線, 金) → [kimi]¹⁹⁾
- /irim/ (이 름) → [iremi]
- cf. [i:rimi]
- /pʰupsip/ (風習) → [pʰupsibi]
- /muk'im/ (득 음) → [muk'imii]
- /pəkʰim/ (거 품) → [pəkʰimirayo]
- /curim/ (주 름) → [curimiragurya]
- /pədim/ (비 름) → [pədimiji]
- /ukʰim/ (옹 큼) → [ukʰimirayo]
- /tʰi:rim/ (트 름) → [tʰi:rimirayo]
- /kirik/ (그 릇) → [kirigi] cf. [kirisi]
- /hi:p/ (興) → [hi:p̩i]
- /hi:m/ (喜) → [hi:mi]
- /tʰi:m/ (틈) → [tʰi:mi] ~ [tʰimi]

나) ə→e, E, ə:→e:, E: 與否

- /cəp/ (情) → [cep̩i]
- /t'ək/ (역) → [t'egi]
- /səm/ (石) → [semi]
- /səp/ (설) → [sebi]
- /pusək/ (부 역) → [puseginggamman]
- /sirəp/ (시 렁) → [siregi]

19) / / 는 基底形을, [] 는 音聲實現形을 나타내는 데 사용하며, () 는 표준 어, 혹은 그 외에 의미를 알 수 있도록 漢字 등을 표기하는 데 사용한다.

/silkeɒp/(살강)→[silgepjiji]
 /mehyəɒp/(매 형)→[mehepjiru]
 /yapnŷem/(양념)→[yapnemiraru]
 /kə:m/(劍)→[kə:mi]
 /pə:m/(虎)→[pə:mi]~[pəymi]
 /st̪im/(島)→[st̪imi ic'i]
 cf. /si:p/(姓)→[si:pi kɪŋgaya] ~[si:pi]

나) a→e, E. a:→e:, E: 與否

/kap/(江)→[kEgi ʌps'ə]
 /cam/(召)→[cEmi onda]
 /isak/(이 쟈)→[isEgi oʌʌaonda]
 /pam/(夜)→[pəmi tōmən]
 /sap/(삽)→[sEbiraguryə sap]
 /t'o:rap/(도량)→[t'o:rrEpiraŋu]
 /teyap/(대 야)→[tEyEpiraŋo]
 /pa:t̪m/(栗)→[pE:mimin pa:m]
 /ma:t̪m/(마-음)→[mE:mi, ma:t̪mən co:ndi]
 /ta:t̪m/(塘)→[tE:miragirək'a?]
 /ca:ŋ/(간장)→[ca:ŋi]~[cE:ŋi]
 cf. [kancEŋi]
 /ka:t̪m/(웃-감)→[ka:t̪mi cot̪a]~[kE:mi cot̪a]
 cf. [ok'Emi cot̪a]

나) o→ø, o:→ø: 與否

/pok/(福)→[pögi ondayo]
 /mom/(母)→[mömi apʰuda]
 /kʰop/(太)→[kʰögi]
 /ipok/(衣服)→[ibögi]
 /nop/(音)→[nöbiraniŋgəsin]
 /sutnom/(矢弓)→[sumnömirayo]
 /pusut'ok/(부식 둘)→[pusut'ögiraŋo]
 /ko:t̪m/(熊)→[ko:mi ik'andi]
 /to:ŋ/(大便)→[to:ŋi mEryəŋgabuda]
 /no:ŋ/(장통)→[no:ŋi]~[nöŋi]

/so:k/(内)→[sö:gi s'irida]

/so:m/(綿)→[so:miragurya]

마) u→ü, u:→ü: 與否

/kuk/(국)→[kügi]

/topp^bug/(東風)→[topp^büpi]

/tuk/(두통무늬)→[tüyirato]

/ha:nc^buk/(하루걸이)→[ha:nc^bügiragu]

/sup/(숲)→[subi]

/su:m/(숨)→[su:mi]~[su:mi]

/cu:p/(僧)→[cu:pi]~[cuyipi]~[cüpi]

위의 예들에서 우리는 完州地域語에 있어 主格 標識 ‘一이’나 繁辭 ‘—이—’와 體言의 연결에서 움라우트 現象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V \rightarrow [-back] / _ \left(\begin{array}{c} C \\ -coronal \end{array} \right) + \left(\begin{array}{c} -cons \\ -back \\ +high \end{array} \right)$$

의 환경일 때는 거의 기계적이라고 할 만큼 움라우트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다. 사실 여기에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았지만, 가)~마)에서 움라우트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 것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경우에서 움라우트가 일어남을 볼 수 있다.²⁰⁾

그러면 여기서 움라우트를 拒否하고 있는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이것들은 과연 우연의 소산인가?

하나의 音韻現象은, 일정한 音韻規則과 그에 부수되는 音韻論的 制約에 의하여 설명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다(李秉根, 1975; 17). 그러나 어떤 音韻現象이 반드시 音韻論의 層位에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움라우트 現象을 설명하는 데에서, 形態論的, 統辭論的 層位에서의 規制에 대하여 論議하게 되는 소이가 여기에 있다. 그러나 그러한 形態論的·統辭論的 規制에 의해서도 설명되지 않는 부분

20) 崔泰榮(1978)에서는 약간 다른 견해가 제시되어 있다.

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例外로 처리하게 된다. 그러나,例外의 存在는 規則의 強度를 弱化시키게 되고,例外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規則의 說得力은 약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움라우트 現象에서 예외로 나타나는 존재들을 가능한 한 規則의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被同化音이 /i/나 /u/, /o/인 경우 ‘이, 이, 이’의 單母音化가 ‘ㅔ, ㅔ’의 單母音化보다 늦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움라우트 規則의 適用에서 /a/, /ə/보다 약화된다는식의 설명을 시도했던 것이다. 그러나 被同化音이 /i/, /u/, /o/가 아닌 경우에 대하여는 움라우트 規則의 適用을 받지 않는 이유를 찾아낼 수 없었고, 이에 대하여는 결국例外로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면例外처럼 보이는 것들을 다시 한 번 살펴보자.

[kirigi]	[ca:gi]~[cE:gi]
[hi:gi]	[ko:mi]
[hi:mi]	[to:gi]
[t'i:mi]~[t'imi]	[no:pi]~[nɔpi]
[ke:mi]	[so:mi]
[pe:mi]~[peymi]	[subi]
[st:mi]	[su:mi]~[sü:mi]
[st:gi]~[sr:pi]	[cu:gi]~[cuygi]~[cügi]
[ka:mi]~[kE:mi]	

여기서 우리는 [subi] [kirigi]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音長을 가지는 語彙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움라우트 規則의 適用을 拒否하는 것들이 대부분 音長을 가진다는 사실은 音長이 움라우트에 대해 制約으로 작용함을 말해 준다. 더구나 여기 예시한 것들이 國語의 單音節語中 音長을 가지는 語彙의 거의 전부라는 사실을 감안하면²¹⁾ 그 가능성은 더욱 커진다. 2音節以下에서는 音長의 音聲的 實現은 이루어지지 않는

21) 李熙昇「국어대사전」(제28판)을 이용하여 확인한 것으로, 單音節語中 音長을 갖는 단어는(표준어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50여개 정도로, 여기의 예들은 그 중에서 움라우트의 환경 속에 드는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다.

다는 견해(金完鎮, 1972:285)를 받아들일 경우, 體言과 曲用語尾 사이의 形態素 結合에서의 움라우트 실현에 대한 音長의 制約 與否는 單音節語의 경우에서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래의 움라우트 規則은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left[\begin{smallmatrix} V \\ -\text{long} \end{smallmatrix} \right] \rightarrow [-\text{back}] / \quad \left[\begin{smallmatrix} C \\ -\text{coronal} \end{smallmatrix} \right] \left[\begin{smallmatrix} -\text{cons} \\ -\text{back} \\ +\text{high} \end{smallmatrix} \right]$$

(여기서 [subi]와 [kirigi]가 문제로 남는데 [kirigi]는 [kiriši]와 doublet로 존재한다는 데서 어떤 해명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subi]는 역시 예외로 남는다).

그런데 被同化音이 [+long]이면서도 움라우트 規則을 適用받는 다음과 같은 예들이 있어 문제가 된다.

[mE:mi]	[pe:mi]
[tE:mi]	[sö:gi]
[cE:gi]~[ca:gi]	[cügi]~[cuygi]~[cu:gi]
[si:gi]~[si:gi] ²²⁾	[sü:mi]~[su:mi]
[nögi]~[no:gi]	[pøymi]~[pe:mi]
[tʰimi]~[tʰi:mi]	

위의 예들은 /pa:m/, /ma:m/, /ta:m/, /so:k/의 경우를 제외하면 움라우트를 일으키기도 하고, 일으키지 않기도 하는데, 이는 움라우트의 制約 免除의 順序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재미있는 시사를 던져준다. 즉 항상 움라우트된 語形만을 보여주는 /pa:m/, /ma:m/, /ta:m/의 경우는 모두 被同化音이 /a:/이고, /so:k/의 경우 頭音이 /s/, 즉 齒察音이며, 또 /pɔ:m/, /cu:y/의 경우 [pøymi], [cuygi]로 실현되기도 하여 下向性 二重母音을 형성하며, 長母音 /ə:/는 거의 움라우트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 이러한 것들은 움라우트의 史的 展開過程과도 관련되는 듯하고, 또 움라우트와 母音體系와의 관계를 단편적으로나마 보여

22) 이는 '姓'을 의미하는데, /ə:/가 /i:/와 완전히 중화된 예가 된다. 後述參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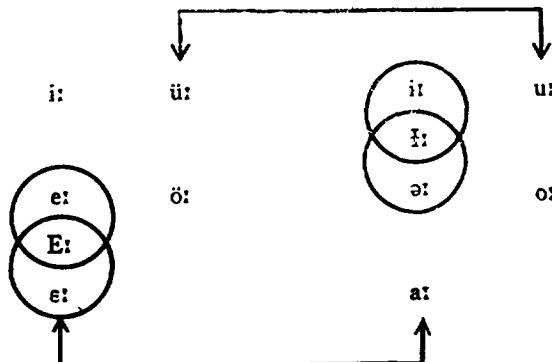
주고 있다.

움라우트 現象은 被同化音이 /a/, /ə/일 때 가장 먼저 일어났으며, i→i, o→ö, u→ü의 순서를 밟았으리라는 것이 그 史的 展開 過程에 대한 일반적 견해인데, 形態素 境界에서의 [+long] 차질에 의한 制約을 免除받는 순서도 그와 동일한 과정을 밟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모음 /ə:/의 경우, [pəy̩mi]처럼 下向性 二重母音을 형성하거나, 制約의 免除를 거의 받지 못하는데, 이는 이 地域語의 母音體系와 관련시켜 보면 당연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지역의 短母音體系는 10母音體系로 볼 수 있는데, 대개 〔표 1〕 정도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長母音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즉 長母音 /ə:/는 /i:/와 中和되는 과정에 있는 바, 대개는 [I:] 정도로 실현되는 것이 보통이다.

/sə:m/ (席) → [s̩i:m̩i]

/nə:l/ (板) → [n̩i:l̩]

/yə:l̩da/ (闊) → [y̩i:l̩d̩a] [y̩i:l̩d̩a] mara]



↑↑는 前・後舌에 의한 대립을 원온 中和 상태를 표시한다

〔표 1〕

이렇게 /ə:/가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히 ']'母音에 의한 逆行同化는 不安定한 것일 수 밖에 없고, 그 결과 /ə:/가 制約의 免除에서 가

장 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下向性 二重母音을 형성하는 [pəymi], [cuyŋi]의 두例는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움라우트의 制約條件이 되는 音長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過渡的인 段階를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즉 /hi:m/이나 /so:m/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hiymi], [soymi]와 같은 과정을 거쳐 [himi] [sömi]로 실현되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는 『章에서의 「열여춘향슈절가」의例와 함께 움라우트의 成立과 單母音化의 時期推定』이라는 면에서 다시 한 번 論議될 것이다.

그러나 音長이라는 ‘音韻論的 制約’은 점차 制約으로서의 機能을 잃어가는 듯하다. 그것은 音長에 의한 對立雙이 별로 많지 않다(특히 體言의 경우에)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은가 한다. 音長에 의한 意味對立이 가장 잘 들어난다고 하는 中部方言에서도 짧은 층에서는 점차 그 구별이 없어져가는 데서도 그 일면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III. 움라우트 規則의 史的 展開

國語에서의 움라우트 現象이 하나의 史的 現象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通時的 考察이 쉽지 않은 것은, 中部方言—특히 많은 文獻資料를 가지고 있는 서울을 중심으로 한 경기도 일원—에서는 形態素 境界에서의 움라우트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과, 움라우트 現象이 가장 활발하다고 보고된 南部方言의 경우 文獻資料를 통한 확인이 어렵다는 데서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完州地城語의 움라우트 現象에 대한 考察을 목적으로 하는 本稿는 아주 다행한 경우에 속한다. 그것은 1890년대를 전후하여 刊行된 것으로 믿어지는 完板本「열여춘향슈절가」84張本²³⁾이 現存하고 있

23) 「열여춘향슈절가」에 대한 書誌的 考察은 金東旭(1976), 「春香傳研究」pp. 140~147, pp. 396~402를 參照.

어, 完州地域語에 대한 通時的 考察을 일부나마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이 完版本 「열여춘향수첩가」가 全羅道 方言의 영향속에서 製作·刊行되었음은 이미 周知의 사실인 바, 여기서는 몇가지 語學的 根據를 제시하여 이것이 完州地域語의 영향 아래서 制作되었음을 보이고자 한다.²⁴⁾

첫째, 허다히 나타나는 口蓋音化의 예를 들 수 있다.

지 달일체(36)	짚 품(46, 47)
짚 케(36)	짚너넬체(51)
지 지개(52)	전의소(113)
짚(62)	심솟전란(2)
버신짚의(69)	성언(5)
짚게쉬고(80)	제아린니(47)
체집(118)	상단이(47, 91, 152)

둘째, ‘에 다→으다’, ‘에게→으게’, ‘에서→으서’ 등의 표기가 다수 나타난다.

온낫스다(100)	남원땅으서(73)
입흐다(63, 13)	춘향으게(21)
발가락으(53)	도그다가(129)

세째, 二重母音 ‘의’가 ‘으’로 표기된 예가 보인다.

날찻기흐의로체(129)	흐심(45)
으복(52)	

네째, 完州地域에서 현재 사용되는 方言形 語彙들이 다수 보인다.

흐홍하게(138)	부하나게만(59)
-----------	-----------

24) 資料의 藏集은 梨花女子大學校 韓國文化研究院 刊 「韓國古代小說叢書」第 二卷(影印本)을 이용하였다. ()안의 숫자는 影印本의 페이지를 표시한다.

나구(9)	불여수나(66)
초하(15)	도치들고(141)
칙(15)	호로자식(145)
근의(16)	장기(73)
아우트난이 다(27)	츄워노ون(67)
단양(52)	독다리(19)
처체, 두체(50)	시물(117)
야탈체(115)	교탁기(74)

이 예들 중 특히 ‘고탁기’라는 副詞는 ‘금방’이란 의미로 원주근방에서만 사용되는 어휘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된다.
다섯째, 이 지역의 특징적 표현법 용례.

몸체는 쪽을 버셔난듸(148)	
엇체요나요(153)	
이고 박터 쟁네(165)	
……마탁(40, 85)	
줄거 시요(73)	
어通报 여러분 한성부르게(62)	
잇틔로만 될난인세(58)	
바들썩기(40)	
보너를 못하옹고(44)	(위의 點筆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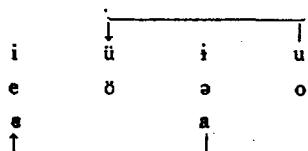
그러면 이렇게 完州地域語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열여춘향수결가」에서, 움라우트 現象은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보자.²⁵⁾

직기(138, 151)	이비(51, 56)
귀경(7, 9, 20, 140, 139)	cf. 허수이비(127)
귀별(160)	직미(58, 63)
뒤견이(122)	적별(159)
줘식기(142)	

25) 예로 제시된 語彙들의 多數는 움라우트되지 않은 語形과 함께 쓰인다.

성예 (158)	듯처비 (63)
쇠견 (161)	처미 (5)
이미 (아미 24)	퇴인 (통인 18, 95)
힘교 (29)	힘기 (13, 123)
심식이 (4)	일의미라 (11)
춘沆이는 (113)	
집평이 (129)	외입정이 (18)
썩기미라 (49)	네거 (125)
깻길손가 (3)	의린듯 (123)
기려잇다 (43)	짓틔린니 (97)
기려내여 (123)	정성틔린것파 (35)
너리려무나 (67)	사틔리고 (157)
너리면이 (111)	릭기는 (51)
너리신이 (135)	메긴후에 (105)
버려왓체 (116)	히켜 (48, 118, 151, 166)
너려오난 (166)	히켜시되 (122)
서기기틀 (158)	파직치고 (100)
서겨보면 (30)	쩍여 (166)
예길더니 (47)	제쳐노고 (52)
성겨 (66)	처리난디 (138)
예기음너다 (131)	췌기시며 (64)

여기서 우선 ‘일의미라(이름이라)’의 예는 용언의 ‘틔리—’와 함께 下向性 二重母音을 형성하는 예로 보여 상당히 재미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前部母音의 形成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움라우트가 가능하다는 既存의 論議와는 相衝되는 것으로 보여 母音體系와 움라우트의 관계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지 않은가 여겨진다. 즉,



정도로 표시되는 이 움라우트 現象이 반드시 $i \rightarrow i$, $u \rightarrow \ddot{u}$, $\ddot{e} \rightarrow e$ 등의 과정을 직접적으로 겪은 것이 아니고, $i \rightarrow iy \rightarrow i$, $u \rightarrow uy \rightarrow \ddot{u}$, $\ddot{e} \rightarrow ey \rightarrow e$ 의 과정을 밟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움라우트의 최초의 예²⁶⁾라고 이야기되는 ‘색기도 떠허 잇느냐’의 ‘색기’조차도 어쩌면 單母音化의 적극적인 證據가 아니라 off-glide를 가지는 二重母音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더구나 「兩念齋手書」에 나타나는 ‘체관 대리고’의 ‘대리—’의 경우,²⁷⁾ 이 「열여춘향수절가」에서는 ‘다리—’로만 나타난다는 것이 그 의심을 더욱 짙게 한다. 즉 ‘대리—’의 예는 /teri-/가 아니라 /tayri-/였는데, off-glide가 音韻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는 그냥 탈락하여 ‘다리—’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는 現代 完州地域語에서 ‘드리—’가 用言의 예 ‘티리—’에 대신하고 있는 것²⁸⁾에서도 그 根據를 찾을 수 있는데, ‘티리—’의 경우 /tiyri-/였는데 off-glide y가 탈락, /tiri-/로 된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그것은 現代 完地地域語에서 被同化音이 音長을 가지는 경우 [pəy̩mi] [cuyŋ̩pi] 등으로 실현되는 것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고, 또 ‘사이>새’, ‘가히>가이>개’ 등의 下向性二重母音의 縮約에 의한 單母音化가 존재한다는 데서 그 根據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움라우트의 歷史的 過程이, 音長이라고 하는 音韻論의 制約이 깨어지는 과정에서 다시 [pə:mi]~[pəy̩mi], [cu:ŋ̩]~[cuyŋ̩pi]~[cü:ŋ̩pi]로 再現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는 좀 더 깊고 細密한 檢討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體言의 경우 현재 完州地域語가 규칙적으로 보여주는 主格 標識 ‘—이’와 繫辭 ‘—이—’에 의한 움라우트의 예가 아주 적다는 점이다. ‘십석이(십삭이)’ ‘춘령이는(춘향이

26) 金完鎮(1971). 「國語音韻體系의 研究」, p. 17에서 재인용.

27) 위의 책 p. 18에서 재인용.

28) ‘드리—’의 경우, ‘(물건을)사다리—’처럼 경우에 따라 ‘다리—’로 실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드리—’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는)' '일의미라'의 3개의 예가 나타날 뿐인데, 이에 비하여 體言 形態素 内의 움라우트의 경우는 비교적 자유롭게 나타난다. 이러한 資料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는 움라우트 規則의 適用이 段階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 즉 現代의 完州地域語에서는 體言·形態素 内部에서 介在子音이 [-coronal]인 경우에 움라우트를 겪지 않은 語形은 거의 찾을 수 없는데, 이는 일단 움라우트規則이 제 1 차적으로 語幹内部에 適用되고 2차적으로 形態素사이의 結合에 適用되었으리라고 판단되는 것이다.

1차 움라우트 規則의 適用이 이미 完了되었으리라는 사실은, 아직 움라우트를 입지 않은 語彙들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다. 종래에 움라우트 現象의例外로 지적되던 語彙들이 그것인데 '호미, 거미, 나비, 모기, 조기' 등의 어휘들은 完州地域語에서는 '호미~호멩이, 거무, 나비, 모구, 조구' 등으로 나타난다. '거무, 모구, 조구' 등은 '나>타'의 歷史的 過程을 거쳐 이미 움라우트 환경과는 무관한 것이 되고 말았지만, '호미, 나비'의 경우는 움라우트 規則이 적용되던 당시, 後行하는 '나'가 '나'여서 同化主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없었거나, 音長이라고 하는 制約때문에 움라우트 規則이 適用되지 못하였으며, 완전히 '나'로 정착된 현재에도 움라우트 規則의 適用이 이미 完了되었기 때문에 움라우트된 語形을 보이지 않는다는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語幹 内部에서의 움라우트 規則適用이 完了되었을 가능성은, 움라우트 規則이 適用된 이후에 생겨난 語彙들의 경우 가장 특징적으로 들어난다. 이 지역 話者들에게 아주 친숙한 단어이면서도 움라우트를 겪지 않은 것으로 [ka:rgi], [horuggi], [^{tʰa:}makk'i], [kepunggi]등의 예를 들 수 있는 데, 이것들이 모두 1920年代 以後에야 사용되기 시작한 단어들임을 생각하면 20C 初半에 이미 體言에 관한 한 語幹 内部의 움라우트 規則의 適用은 完了된 것으로 보인다.

IV. 結論

지금까지 本稿는 完州地域語의 움라우트 現象에 대하여 共時的, 通時的 면에서 새로운 檢討를 시도하였다. 물론 試攷에 불과한 것이어서 論議가 불충분한 곳이 적지 않았으나, 지금까지의 論議를 要約함으로써 結論에 대신하기로 한다.

II章에서는 被同化音의 音長이 움라우트 現象의 制約條件으로 追加되어야 함을 論議하였다. 音長의 制約에 대한 共時的 검토는, 體言, 그것도 單音節語만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資料의 制約 때문에 극히 빈약한 것일 수밖에 없었지만, 다음과 같이 움라우트 規則이 수정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left[\begin{smallmatrix} V \\ -long \end{smallmatrix} \right] \rightarrow [-back] / __ \left[\begin{smallmatrix} C \\ -coronal \end{smallmatrix} \right] \left(\begin{array}{c} -cons \\ -back \\ +high \end{array} \right)$$

또한 이와 같은 音長의 制約이 音長을 가진 語彙가 극히 적다는 이유 때문에 점차 무너져가고 있음도 언급했다.

III章에서는 完版本「열여춘향수절가」의 資料와 現代 完州地域語의 움라우트의 音聲的 實現資料를 통하여, 前部母音이 形成된 뒤에야 움라우트가 가능하였다는 既存의 설명에 대하여, off-glide 형성을 통하여 움라우트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점에서 單母音化의 時期 追定에 대하여 再考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또 語幹 形態素 内部에서의 움라우트 規則適用이 20世紀初에 完了되었으리라는 추정을 시도하였다.